‘벼랑 끝’ 페퍼스, 선두 도로공사 상대 반전 노린다

JINAIR V-LEAGUE 2025~2026

오늘 원정 경기서 8연패 탈출 도전장
조이 폭발력…하혜진·이원정 복귀 희망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길어진 연패를 끊기 위해 ‘선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에 도전장을 내민다.

페퍼스는 26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반전을 노린다.

페퍼스는 직전 경기에서 ‘에이스’ 조이의 득점 폭발을 승리로 잇지 못했다.

조이는 지난 20일 흥국생명전에서 38득점을 올리며 개인 최다 득점과 개인 시즌 2호 트리플크라운(후위공격 9개·서브에이스 3개·블로킹 3개)을 작성했다. 박정아도 이날 여자부 역대 두 번째로 공격 득점 5500점을 달성했지만 팀은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하면서 8연패에 빠졌다.

지난 연패 과정에서 승부처 패턴은 비슷했다.

페퍼스는 최근 세트 막판 연속 실점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됐고, 범실과 리시브 불안이 겹쳐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결국 조이가 만든 기회를 승부처에서 누가 득점으로 마무리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20점 이후 범실과 리시브 불안으로 흔들리는 흐름을 붙잡아야 한다.

흐름을 바꿀 단서는 있다. 부상에서 회복한 하혜진과 이원정이 코트로 복귀해 로테이션 폭이 넓어졌다. 세터 이원정이 아웃사이드 히터진과 호흡을 맞춰 공격 전개를 정리해주고, 미들블로커 하혜진은 중앙 높이와 블로킹에서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공격 활로가 더 열릴 수 있다.

시즌 초 부진했던 박정아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원정 역시 직전 경기 선발로 나선 만큼 새로운 공격수들과 손발이 맞아갈수록 기대감도 커진다.

상대는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도로공사이다.

도로공사는 최근 GS칼텍스전에서 0-2를 3-2로 뒤집는 대역전승을 거두며 14승 3패 (승점 37) 으로 선두를 지켰다.

도로공사는 강소휘·타나차·모마로 이어지는 공격 옵션이 두껍고, 뒷심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풀세트 접전이 많아 체력 안배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페퍼스가 파고들 수 있는 틈으로 보여진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은 1승 1패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10월 21일 페퍼스는 도로공사를 풀세트 끝에 3-2로 꺾었지만, 11월 27일 2라운드에서는 0-3으로 완패했다.

승리했던 경기는 서브와 수비로 긴 랠리를 만들며 끝까지 버틴 ‘총력전’이었고, 패했던 경기는 상대의 높이와 결정력에 막혀 리듬을 찾지 못한 채 흐름을 내준 경기였다.

이번에도 ‘높이 싸움’의 정면 승부보다는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리드를 가져오고, 조이를 축으로 국내진의 분산 득점을 살리는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도로공사전은 단순한 ‘선두 상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페퍼스는 시즌 초 6승 2패(승점 16)으로 2위를 달리다, 2라운드 정관장전 이후 8연패를 당해 6위(6승 10패·승점 17)로 내려앉았다.

V리그는 정규리그 상위 3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고, 3위와 4위 승점 차가 3점 이내일 경우 준플레이오프가 열릴 수 있다. ‘1승’이 추격 레이스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특히 도로공사를 잡아낼 경우 반등 폭이 크다. 3-0 또는 3-1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기면 페퍼스는 승점 20까지 올라 리그 중위권 추격에 나설 수 있다. 연패를 끊는 동시에 중위권과의 거리까지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걸린 한 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 회복이다.

이번 시즌 미디어데이에서 장소연 감독이 “Step Up to Win, 중꺾도마(중요한 건 꺾여도 도전하는 마음)”를 외쳤던 만큼, 페퍼스가 자신을 믿고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AI페퍼스는 지난 10월 2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KOVO 제공〉

아시안게임 이끌 여자배구 대표팀 새 사령탑 ‘4파전’ 경쟁

외국인 2명·내국인 2명 지원
전임 감독으로 ‘겸직’은 금지

내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 자리에 오르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해 4명이 경쟁한다.

25일 대한배구협회에 따르면 여자 대표팀 지도자 공모 결과, 내국인 2명과 외국인 2명 등 4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올해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강등으로 계약 연장에 실패한 페르난도 모랄레스 전 여자대표팀 감독의 후임을 뽑기 위한 것이다.

여자 대표팀 감독과 코치 각 1명을 패키지 형태로 뽑는데, 일부 지원자는 코치를 지명하지 않은 채 감독에만 지원하는 바람에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경쟁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4명의 감독 지원자 중에는 여성 지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감독은 내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주요 국제대회에서 여자팀을 이끈다.

우리나라는 VNL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아시아배구연맹(AVC) 네이션스컵과 7월 동아시아선수권, 8월 아시아선수권, 9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

모랄레스 전 감독의 작전 지시를 듣고 있는 여자배구 대표팀 선수들. 〈FIVB 홈피 캡처〉

이번 감독도 전임이기 때문에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건을 내걸었다.

새 감독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대표팀을 이끈다.

계약 기간은 3년이지만, 내년 아시안게임 성적을 토대로 중간평가를 거쳐 재신임 여부를 묻는 ‘1+2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회는 서류 심사와 여자경기력향상위원회 대면 평가, 대표팀전임감독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새 사령탑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밀라노·코르티나 향한 첫 발…국가대표 훈련 개시

내년 1월 7일 진천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2026년 훈련 시작을 알리는 훈련 개시식이 내년 1월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훈련 개시식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조 동계올림픽과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종합대회를 앞두고 선전을 다짐한다.

개시식은 오전 10시부터 선수촌 내 벨로드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개시식은 유승민 회장이 지난 1월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던 이기흥 전 회장을 꺾고 당선됐고, 김택수 촌장이 진천선수촌의 총괄 책임을 맡은 후 처음 개최된다.

개시식에는 선수촌에서 담금질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선수촌 내 챔피언하우스에서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가 이어진다. 미디어데이 행사에선 쇼트트랙을 포함한 빙상 종목과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가 진행된다.

한편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조에서 열리고,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 일대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신유빈, 왕중왕전 우승 기운 탁구 꿈나무에 전한다

27일 유소년 탁구 축제 참석
세계랭킹 톱10 재진입 도전도

이달 중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시리즈 왕중왕전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한 신유빈(대한항공)이 연말연시를 의미 있고 바쁘게 보낸다.

신유빈은 27과 28일 이틀간 충남 당진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에 참석한다.

신유빈은 대회 개막식이 진행되는 27일 경기장을 찾아 어린 선수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탁구 유망주들의 잔치인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1~5학년 탁구 선수 188명이 참가한다.

신유빈은 작년 처음 개최된 이 행사에 참석해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줬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를 포함해 탁구 꿈나무 289명에 라켓을 선물하기도 했다.

올해 WTT 시리즈 마지막 대회였던 파이널스 홍콩 2025에서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만리장성을 허물고 첫 우승을 합작했던 신유빈은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26년을 바쁘게 시작한다.

파이널스 홍콩이 끝나고 일본 프로탁구 T리그 임대 선수로 잠시 뛰었던 신유빈은 내년 1월 초 세계랭킹 톱10 재진입을 위해 시동을 건다.

신유빈은 새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T 챔피언스 도하 2026에 출전하기 위해 같은 달 5일 출국할 예정이다.

챔피언스 도하는 WTT가 주최하는 내년 첫 대회로, WTT 시리즈에서 그랜드 스매시 다음으로 높은 상위급 대회다.

단식 경기만 열리며, 남녀부 각각 세계 정상급의 32명만 초청됐다.

이 대회에선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쑨잉사를 비롯해 2위 왕만위, 3위 천싱퉁, 4위 콰이만, 5위 왕이디(이상 중국)와 일본의 간판 하리모토 미와(세계 6위) 등과 경쟁해야 한다.

지난 1월 세계랭킹 9위까지 올랐던 신유빈은 올해 WTT 중국 스매시와 챔피언스 몽펠리에, 프랑크푸르트 대회 4강 진출에 이어 더 높은 성적으로 세계 10위 이내 재진입을 노린다.

신유빈은 이어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같은 곳에서 열리는 WTT 스타 컨텐더 도하 2026에 참가한다.

스타 컨텐더 도하에선 여자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세 종목에 모두 출전한다.

신유빈은 여자복식에서 주천희(삼성생명)와 처음 호흡을 맞추고, 혼합복식에선 ‘황금 콤비’ 임종훈과 함께 2026년 WTT 시리즈 첫 우승 도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음악회
'진혼, 기억'

일시 : 2025-12-26(금)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1

광주예술의전당 특별기획연주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음악회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시 : 2025-12-2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